

文, 올림픽을 경제외교로... 일자리·바이오 협력 확대

독일-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스위스-보건·생명과학 중심 교류 폴란드-기업 진출 위해 공조 확대

한국과 독일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스위스와는 빅데이터, 보건산업, 생명과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폴란드와는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프라, 에너지 분야 공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알렉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을 공식 방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번 남북대화 재개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 때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낮 청와대 본관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독일 평화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을 제안했었는데 이것이 결실을 보아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우리에게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에 이르는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앞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덧붙였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베를린 연설을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고 더군다나 단일팀으로 참석하게 됐다. 이렇게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단일팀 구성에 동의한 것은 올림픽 평화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작은 의지라

고 볼 수 있다"면서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이 같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 측에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들을 계속 보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가진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남북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베르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를 출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스위스는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선 (스위스를)배울 점이 많고 협력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국간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베르세 대통령도 "한국과 스위스 간 경제 협약 등을 현대화하면서 경제 교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스위스는 연구, 교육에 관심이 많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엔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온 점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2018~2019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민의당 통합 '활시위'는 떠났다

안·劉, 공동행보하며 홍보 총력전

국민의당이 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정짓는 전(全)당원투표를 시작하며 통합 '초입기'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당원투표의 참여·찬성을 독려하는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공동행보를 이어가며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의 정당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9일까지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10일 ARS 투표 등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사흘간의 투표를 통해 참여당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11일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하고, 13일 통합 전당대회 격인 '수입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통합신당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당원투표에서 당원들의 높은 참여율과 찬성률이 절대적이라는 게 국민의당 내부의 목소리다. 또한 통합반대가 창당한 민주평화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지역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한 '컨벤션효과' 측면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안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 전당원투표에 27만1228명의 당원 모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한 분도 빠짐없는 참여로 당의 견제함을 보여주고, 모든 국민이 집중하는 흥행의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변화가 시작된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변화에 함께 해달라"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거대 양당을 압도하고 거대한 변화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자"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유 대표와의 공동행보를 이어가며 통합신당 홍보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 관측됐다. /이창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에서 민심을 듣는다' 간담회에 앞서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 당명이 적힌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부산광역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민심을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 대표는 "작년 9월에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서 한 적 있다"며 "그 때 제가 부산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 비전에 대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바로 정의로운 부산, 발전하는 부산, 안전한 부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가 뭘까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 9월에 말씀드린 그 비전과 똑같다. 바른미래라고 하면 정의로운 미래, 잘사는 미래 그리고 안전한 미래 아니겠나. 그게 바로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는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신당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초 통합신당의 규모를 최대 33석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통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13명의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평화당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추가적인 의석 감소와 당내 혼란 등이 예상되는 만큼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창당하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 등을 강조해왔지만 이미 퇴색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국민의당 갈등 문제로 예전 선거에서 만큼의 선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與, 임시국회 '보이콧'...냉전 장기화

여야, 여전한 입장차 파행의 본질
보이콧 반복에 자성 필요 목소리

자유한국당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면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행정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상임위원회 공식불참을 통보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보이콧을 시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여당의 사퇴 요구와 그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등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개헌과 민생법안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파행의 본질이라는 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게다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는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매 국회 때마다 충돌하며 보이콧 사태가 반복되자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이날 책임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의 '입법 처리 보이콧' 선언이 있자,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의 일선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마저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2월 국회를 시작부터 흑한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법과 국회

유리규칙에 따라 자당 의원의 의혹과 제척사유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을 하고, 임기도 마르기 전에 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 기간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지 한국당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에서 온 김씨 세습 왕조의 공주님에게 전부 강탈당하게 됐다"며 "김여정에게 핵 폐기만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檢 '채용비리 의혹' 은행 전방위 압수수색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수사선상에 오른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내 행정실과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나은행 서버를 들여다보고 인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인사팀 채용

업무에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하나은행 인사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한 상태로, 검찰은 이중 빠진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과 하나카드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도 이날 부산 남구 문현

동 부산은행 본점에 검사 1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인사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부산은행 본점 외에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관계자 사무실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도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광주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채용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서류 검토작업을 끝낸 뒤 채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범중 기자 joker@